

一百一十八年四月 壬戌條에 「至於司甕院沙器大殿則用白磁器、東舍則用青磁器」라 하여 御用에 白磁器를 使用했음을 알 수 있겠거니와 이제 御厨銘白磁器로 이루어진 一九世紀 御用白磁의 質의 一斑과 이때까지도 御用에 白磁를 계속하여 遵用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높이 七·一cm 口徑(復元) 一一·九cm

慶州在銘石槽二座

鄭 明 鎬

一九六二年秋 大邱日報文化面に 月城郡守 官舍内の 石物이 數點 紹介된 後日 이 뜻을 調査하던 中 注目된 大小二個의 在銘石槽가 있어 이를 紹介코자 한다.

이 石槽中 大型의 것은 前面에 『天光雲影』이라는 刻字가 있으며 槽의 輪廻部(진두리) 上面 兩長邊前方에는 『二樂堂前雙石盆 何年玉女洗頭盆 洗頭人去蓮花發 空有餘香滿舊盆 戊子流頭 蘇湖 李教方』의 橫書와 越便에는 縱書로 『此乃羅代與輪舊物寺廢拋在荊棘中者幾千餘年載 崇禎戊寅冬 運入植蓮以爲賞玩之具顯晦有數□失(夫) 廣陵後人晚悔識』의 刻字가 있는 데 그 中 『羅代與輪舊物 寺廢拋……崇禎戊寅冬運……廣陵後人晚悔……』와 『二樂堂雙石盆 戊子流頭蘇湖李教方』라는 文句가 注目된다. 이 文中에 있는 바와같이 이 水槽는 廢虛된 興輪寺址에서 移送된 것이다. 同石槽에 關하여는 東京通志 佛寺條에 『在府南三里 眞興王甲子創建有石槽 仁祖時 府尹李必榮移置琴鶴軒植白蓮 刻而識之』云云 梅月堂詩四遊錄……遊金鰲錄에 註與輪寺址(盡化閭閻惟石槽鑿獨存)……石槽遇因鑿辭炎……云云 등에서 볼 수 있는 바로서 石槽의 存在와 移置年代를 大略 알 수 있다. 그러나 좀더 仔細히 移置年代와 移置된 現郡守 官舍에 對하여 考察해 보면 石槽記銘에서 「崇禎戊寅冬運……晚悔」와 東京通志의 「仁祖時府尹李必榮 移置琴鶴軒」에서 이곳에 李必榮은 東京通志 歷代守官條에 「府尹李必

榮 丁丑八月庚辰七月初四日來十一日瓜」라고 있고 朝鮮人名辭典에 「李必榮 字 而實 晚悔라 稱하며 廣州人으로 宣祖丁酉에 文科에 登하고 官 參贊에 이르러 漢南君에 封하였다」고 함으로써 石槽의 廣陵後人晚悔와 同一人으로 推定되며 더욱이 晚悔 李必榮이 慶州府尹으로 赴任된 翌年이 바로 戊寅年임을 보아 더욱 確實視되고 있는 바이다. 또한 二樂堂과 通志의 琴鶴軒은 同志宮殿條에 依하면 前者는 在衙門內、後者는 在府衙東으로 되어 있음을 보아 二樂堂은 現郡守官舍 後庭에 있는 韓式瓦家인 듯 하며 後者는 現稅務署로 推定된다. 이로써 晚悔가 赴任翌年 廢虛興輪寺에 放置된 것을 二樂堂前庭에 옮겨 놓고 이곳에 蓮花中 白蓮을 심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戊子流頭에 蘇湖 李教方에 依하여 詩 한 수가 남아 있으니 이 戊子年은 晚悔가 이를 옮긴지 十餘年이 經過된 것이다. 李教方에 對하여서는 上記 諸書에서는 發見치 못하였으나 石佛寺(石窟庵)前室 腰石에 李元八 李教直 李教方 李教大 等の 陰刻人名中에 있어 前記 李教方과 同名인이 아닐까 推定된다. 이 當時에도 往往 부질없는 尋訪客에 依하여 刻名行爲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他 一의 石槽는 小形으로서 石質自體가 前者보다 低質의 花崗岩으로 前面에 琴鶴軒石盆』이라는 題名이 陰刻되어 있다. 이 역시 前述한 大形石槽銘에 「二樂堂前雙石盆」云云과 東京通志 「府尹李必榮移置琴鶴軒……」云云과 關係가 있는 듯하다.

大形과 小形의 二槽中 어느 것이 興輪寺에서 移置되었는지 或은 二個 다 옮겨온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遺憾스럽다. 그러나 上記 資料로써는 二個라는 것이 없으나 晚悔가 在留時에 二個의 石槽가 있었음을 確實하다. 이에 對하여는 後日에 調査로서 밝혀야 할 것이다. 現在 이 兩水槽中 大形은 一九六三年 봄에 慶州博物館으로 小形은 一九六四年 五月 下旬에 石窟庵前 飲料水場으로 各各 移置되었다.

以外에 興輪寺의 遺物이라고 말하는 것은 現在 慶州博物館入口 庭園에 陳列한 拜禮石과 石燈의 中臺와 火舍石을 失한 石燈臺石과 慶州校里 崔浚氏庭의 十二支刻石燈 等이 있다.

實測值

大形 外幅 五尺八寸 外長 十二尺八寸五分 內幅 四尺四寸 內長 十一尺三寸 深二尺二寸 小形 外幅 四尺二寸 外長 八尺八寸二分 內幅 三尺二寸九分 內長 八尺深一尺八寸七分

井邑 長文里 五層石塔

李 殷 昌

全羅北道 井邑郡 古阜面 長文里에서 五層石塔 一基를 調査한 바 있는 데 造塔樣式에 參考가 될가 하여 이에 紹介한다.

古阜 古郡址(註)를 中心으로 그 附近에는 古代寺院의 佛跡이 많다. 古阜面事務所在地에서 東쪽으로 約二km 地點인 斗升山北麓 「양지」洞의 丘陵이 西傾斜를 이룬 곳에 西南向한 寺址가 있다. 寺址는 特別한 遺構나 遺跡은 없고 耕作地化한 밭가운데에 瓦片이 散在하고 있고 地下에 埋沒된 築臺石 一部分을 發見할 수 있었다. 그리고 耕作者인 一老人의 말에 依하면 얼마 前까지 重圈柱座가 造出된 礎石이 殘存하였는데 모두 石材로 搬出되었었다 한다. 이 寺址 東南쪽 언덕에 本稿에 問題를 삼고 있는 五層石塔이 서 있다.

石塔은 花崗岩 總高 六m의 雅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單基壇에 五層塔身이 重積된 方塔인 바 相輪部는 없어졌다.

基壇은 巨大한 一枚板石으로 된 地盤石 위에 四個石片으로 짜인 中石을 놓았으니 中石은 高가 낮고 兩側面石 사이에 前後面石이 끼워져 있으며 幅이 넓은 四隅柱가 刻出되었었다. 그리고 이 中石위에 勾配가 表示된 一枚板石의 甲石을 덮었으니 곧 低平廣大한 單基壇이 形成되었었다.

塔身은 各一個石으로 된 屋身石과 屋蓋石이 重積되었었다. 第一層屋身石은 基壇甲石에 一階段 突起로 된 「괴인」위에 놓였는데 長大하고 四隅柱가 刻出되었었다. 五層까지 同一한 樣式으로 四隅柱가 刻出되었는바 第

二層屋身부터는 急作이 短縮된 屋身高를 보이고 있는데 特別히 屋身石의 隅柱의 幅이 넓은데 注目된다. 屋蓋石은 모두 同一한 樣式인 바 屋表는 四區로 된 落水面 勾配가 緩慢하고 四隅降棟이 내려가다가 四隅角에서 처들

었다. 얇게 刻出된 鮮麗한 「屋蓋石받침」이 五段級으로 統一되고 檐下는 弧線을 보이는데 四隅轉角에서 輕快한 反轉을 이루었으니 곧 「屋蓋石받침」은 新羅石塔樣式에서 온 踏襲이고 「屋蓋反轉」은 百濟石塔樣式의 繼承인것 같다. 相輪部는 없고 露盤으로 推定되는 石片이 地上에 있다.

三

以上이 塔의 特異點은 모두 百濟石塔風으로 特別히 塔體의 모습과 感覺이 定林寺五層石塔의 系譜에 두어야 할 것이며 手法은 麗代로 推定된다. 定林寺五層石塔과의 同一樣式系의 石塔이 後代에 百濟故地에 많이 建立되었으니 곧 扶餘에 가까운 곳으로 長蝦里石塔、舒川庇仁石塔、鷄龍山오리石塔等이 있고 또 扶餘를 若干 멀리 떨어진 全羅道의 金堤歸信寺石塔、井邑隱仙里石塔等이 있고 長文里五層石塔도 新羅樣式이 보이지만 塔全體의 意匠은 百濟樣式의 一例라 하겠다. 이와 같이 後代에 建立된 百濟樣式의 石塔 分布狀態는 注目되는 바로 百濟故地에서는 언제나 定林寺五層石塔이 石塔婆의 祖宗으로서 그 樣式이 後代에 踏襲 再現된 것으로 생각된다.

實測值 單基壇 高 八〇cm 一邊長 一八〇cm、初層塔身 屋身 高 八九cm 幅 九二cm、屋蓋 高 四七cm 幅 一七〇cm
二層塔身 屋身 高 三四cm 幅 八〇cm、屋蓋 高 四〇cm 幅 一五三cm (以下省略)

